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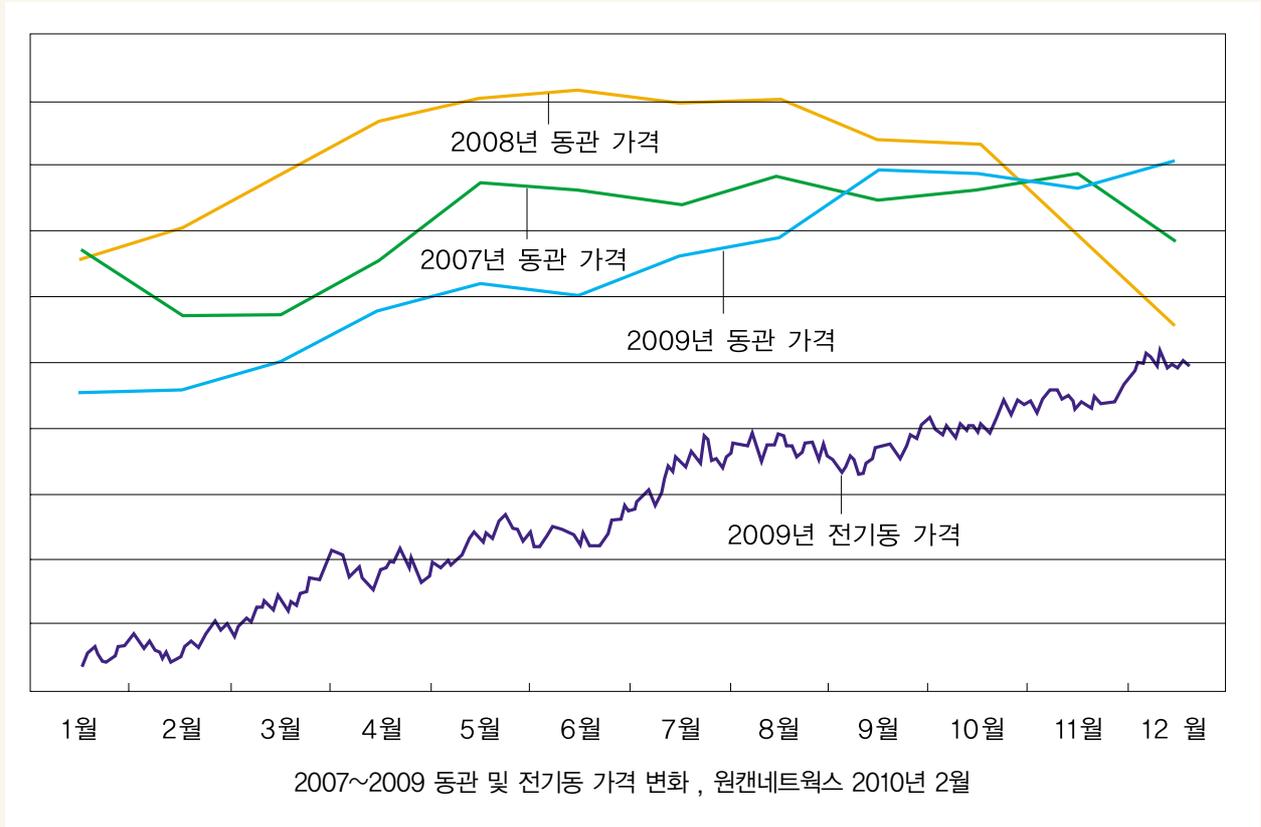
구리 가격 추이

김현회 / 원켄네트웍스 사업총괄본부장

금보다 더 경기에 민감한 원자재가 구리라고 한다. 그만큼 중요한 산업재이고 많이 쓰이기도 한다. 보통 구리 가격은 런던금속거래소 즉, LME 가격이 기준이 된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 들어서도 전기동 가격의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경기에 민감한 원자재인 만큼, 경기 선행 지표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만 본다면 앞으로 산업이 활성화 될 것이므로 모두가 반겨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반색만 하기에는 우리 설비건설 가족들의 시름이 깊다. 오르면 오르는 만큼 자재비 투입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렇다고 미리 사두자니 언제 떨어질지 몰라 그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좀 더 자세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

2010년 1월~2월 자재 동향

자재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들어서며 비철금속 원자재 가격이 소폭으로 내림세를 보임. - 동제품을 제외하고는 환율의 하락과 실수요 물량의 저하로 단가 인상 요인을 실물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강관 및 관련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사들의 강력한 단가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새해 들어 원자재 가격의 인상 등 외부 요인으로 단가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음.
동관 및 관련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과 칠레 발 구리 광산 광부들의 파업으로 인한 재고량 감소 우려가 반영되어 전기동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동관 가격 역시 이에 가세하여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음. 1월 들어 5% 정도의 인상이 있었고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함.
STS관 및 관련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S관은 전년과 비교하여 단가 변동이 없으나 국제 원자재 시장의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임. - 제조사들의 단가 인상 계획이 있는 것으로 예측됨.
PVC관 및 관련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해 들어 안정세로 들어서고 있으나 아직도 메이저 제조사 간의 단가 인상 눈치 보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환율과 유가 급등시 기존 단가를 고수하는 제조사의 단가 인상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구매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활성화시 자재 급등에 대비하여 중장기 대책 수립 필요. - 단기 물량의 경우 각 회사의 현장 공정 상황에 따라 수급 상황을 지켜보며 대책을 세우는 것이 유리함.



그래프에서 보면 지난해 1월 이후 전기동과 동관 가격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기동 상승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귀착된다. 첫째는 경기에 선행한 투자 또는 투기이다. 특히 달러 가치가 하락한 사이에 이를 이용하여 원자재 투자를 하려는 세력들에 의해 가격이 상승하는 측면이 있다. 또 하나는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실수요가 늘어나는 측면이다. 지금까지는 전자의 측면이 강했으나 앞으로는 후자의 측면이 강하리라 예상된다. 다만 최근 들어 화두가 되고 있는 중국 등 각국의 출구 전략과 달러화 강세가 상승 열기를 꺾을 수 있는 소방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아울러 투기 세력에 의한 거품이 아주 없지는 않으니 거품 해소를 위한 일시적 하락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이 없는 한 대세 상승기 임은 분명하다. 하락 보다는 상승에 무게를 두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된다. 단기

적으로도 가격이 내릴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물량을 묶어서 저렴하게 미리 구매하는 편이 나을 듯 싶다.

김현회(金炫會) 총괄본부장 프로필



- 現 원켄네트웍스(구 설비넷) 사업총괄본부장
-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졸(91년)
- 삼성그룹 공채 입사(91년, 삼성화재 발령)
- 홍보실 근무(사보, 사장단 연설문 작성, 사내방송PD, 언론·인터넷 담당 등)
- 삼성그룹디자인연구원 멀티미디어학과 및 UCLA Extention(뉴미디어, 스토리텔링 등) 과정 수료
- 시장개발 및 영업기획 업무 담당(PDA영업, 리플렛 기획 등)
- 인터넷사업팀 근무(삼성화재 전국애니카서비스망 구축, 전자인터넷사업 기획 운영 등)